

# 법인세 핵심쟁점 ‘100조 돌파’... “기업 세금 깎아야 경제 살아”

**법인세율 25→22%로...과표구간 단순화**  
**올해 법인세수 105조...전년보다 35조 ↑**  
**KDI·조세연 “법인세 인하 투자·고용 증가”**

여야가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세법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가운데 법인세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하가 ‘부자 감세’라며 비꼬고 있지만, 정부는 내년 글로벌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만큼 법인세율을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낮춰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세제 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2억원 이하(세율 10%) ▲2억~200억원(20%) ▲200억~3000억원(22%) ▲3000억원 초과(25%)인 과세표준 구간을 ▲5억~200억원 미만(20%) ▲200억원 초과(22%)로 조정하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억원까지 특별세율 10%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다른 주요국보다 높아 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7번째로 높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은 2020년 기준 3.4%로 미국(1.3%), 영국(2.3%), 일본(3.1%) 등 주요국보다 높은 편이다. 실제 우리나라 법인세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역시 105조원으로 지난해 70조4000억원보다 35조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국세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26.5%로 2011~2020년 평균 22.1%보다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법인세율을 낮추면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거라고 기대했다. 또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고 세수 또한 증가할 거라고 판단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등도 법인세 인하하면 투자와 고용 증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분석했다. KDI는 2016년 보고서를 통해 법인세 평균 실효세

율을 1%포인트(p) 인하하면 투자율이 0.2%p 증가한다고 밝혔다. 조세연은 법인세율을 3%p 높이면 투자와 고용이 각각 0.7%, 0.2% 줄어들고 GDP가 0.3% 감소할 거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8년 미국이 법인세 인하 정책으로 GDP가 1.2% 증가했다며 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이 힘을 실었다. 반면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인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우리나라가 높은 법인세율로 조세 경쟁력이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우리나라 조세정책 분야 경쟁력은 전체 63개국 중 26위로 2017년보다 11단계 내려갔다. 법인세 세율도 39위로 2017년(28위)보다 크게 떨어졌다. 이에 IMF는 우리나라에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축소와 누진 세율체계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OECD도 법인세를 인하하면 자산선택의 비효율성을 줄여 투자를 높일 수 있다고 권고했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인세 인하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거대 야당의 벽에 막혀 실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일찌감치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9월 의원총회에서 “법인세 인하 등 (5년간) 60조원에 달하는 초부자 감세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

라고 강조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회사 월급 주고 다 털어내고 이익만 3000억 원 이상인 기업 세금을 깎겠다는 게 이 정부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정부는 중소기업·대기업 규모별로 균형 있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세 부담 경감률은 중소기업(12.8%)이 대기업(10.2%)보다 더 크다는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오히려 대기업보다 감면 폭이 크다”며 “대기업이 부자라는 프레임부터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상속·증여세 개편과 기업상속공제 제도를 두고도 야당과 정부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상속·증여세를 깎아주고 기업상속공제 제도를 완화하면 ‘부의 대물림’을 정부가 지원하는 꼴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율은 2000년 이후 변동 없이 50% 최고 세율로 운용 중이며 세 부담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율은 5단계 누진세율로 2000년 최고세율을 45%에서 50%로 상향한 이후 22년 동안 그대로 운용 중이다. 이는 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상속공제가 부자 감세

라는 야당의 주장도 적극적으로 받아냈다. 기업상속공제는 기업의 주식 등을 자녀 세대에 계승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애초 가족 단위의 영세업체 사업주가 자식들에게 사업을 물려줄 때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됐다. 대상 기업은 현재 매출 4000억원 이하 중견기업으로 공제액 한도는 최대 500억원이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기업상속공제 범위를 매출액 1조원 미만으로 늘리고 공제액 한도도 최대 1000억원까지로 확대했다. 중견기업의 원활한 기업 승계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기재부는 “기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은 중산·서민층을 위한 것”이라며 “이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을 육성하면 고용 증가 등 장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업력이 100년 이상인 장수기업은 7개에 그쳤다. 일본 3만3076개, 미국 1만9497개, 스웨덴 1만3997개, 독일 4947개 등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수준인 셈이다. 기재부는 “우리나라의 기업상속공제 제도는 독일·일본 등 해외 주요국 대비 적용 대상 및 공제금액이 제한적이고 사후관리 요건이 엄격한 편”이라며 “독일·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기업상속공제 이용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강조했다. 최이슬기자

## 제네시스 GV70, 獨서 테슬라 모델Y 제치고 전기차 1위

‘유럽 유력 자동차 전문가 비교평가’ 경쟁력 인정



현대자동차그룹의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의 GV70 전동화모델이 유럽의 유력 자동차 전문지 비교평가에서 테슬라의 모델Y를 앞서며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27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독일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 빌트(Auto Bild)는 최근 실시한 전기차 모델의 비교 평가에서 GV70이 테슬라 모델Y와 포드 머스탱 마하-E보다 ‘역동적이면서도 쾌적한 차’라고 평가하고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이런 비교평가는 ▲바디 ▲편의성 ▲파워트레인 ▲주행성 ▲커넥티비티 ▲친환경성 ▲경제성 등 7가지 평가 항목에 걸쳐 진행됐다. GV70은 평가항목 중 ▲편의성 ▲주행성 ▲커넥티비티 등 3개 항목에서 1위를 차지하며 종합점수 569점으로 561점을 받은 모델Y와 509점을 받은 머스탱 마하-E를 제치고 최고점을 획득했다. 특히 GV70은 서스펜션 성능과 첨단 전자보조 시스템(ADAS) 등에서 우위를 점해 ‘편의성’ 항목에서만 모델Y 등 경쟁차 대비 20점 이상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아우토 빌트는 “제네시스 GV70의 쾌적하고 역동적인 주행성과 뛰어난 커넥티비티 기능이 인상적이었다”고 호평했다. GV70 전동화모델은 최대 출력 160kW, 최대 토크 350Nm의 힘을 내는 모터를 전류와 후륜에 각각 적용해 합산 최대 출력 320kW(부스트 모드 시 360kW), 합산 최대 토크 700Nm의 동력성을 갖추고 있다. 77.4kWh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 시 최대 400km 주행(국내 인증 기준)이 가능하다. 김재환기자

## 식품업계, 월드컵 시즌 ‘1인 가구’ 공략



2022 월드컵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올해 월드컵은 길거리 응원 보다 집에서 홀로 월드컵을 관람하는 ‘집관족’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업계는 월드컵을 연상케 하는 신제품을 선보이며 1인 가구 집관족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도미노피자는 스트릿 피자 3종을 출시했다. 신메뉴는 대만 야시장의 ‘왕자 치즈 감자’를 재현한 ‘대만 콘치즈 감자 피자’, 케밥을 피자로 구현한 ‘터키 치킨 케밥 피자’, 치즈의 고소함과 바질의 풍미를 담은 ‘이탈리아 마르게리타 피자’ 등이다. 신메뉴는 3개월 한정 판매로 출시됐다. 1인 피자 6900원, 라지 사이즈 1만7900원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어 홀로 월드컵을 관람하는 1인 가구 집관족을 위한 야식으로 제격이다. KFC는 ‘치맥 슬리콤보’와 ‘버맥 슬리콤보’를 한정 판매한다. 치맥 슬리콤보는 담백한 치킨 안심살로 만든 순살 치킨 스낵 텐더(8조각)와 짭짤한 맛에 바삭한 식감의 인기 메뉴 닭껍질튀김, 상큼한 아제 샐러드 코울슬로, 맥주 2잔으로 구성됐다. 오뚜기는 ‘오즈키친 스파이시 마요와 만난 고추치킨’을 출시했다. 해당 치킨은 국산 청양고추와 홍고추로 만든 매콤바삭한 고추치킨에 마요소스를 더해 매콤한 풍미를 느낄 수 있다. 지퍼백 포장으로 혼자서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 오유나기자

## 김장비용 하향 안정세 지속...배추 20포기 기준 21만원

본격적인 김장철 김장비용이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하는 등 전년보다 낮은 수준에서 안정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배추 20포기 기준 김장비용은 21만470원으로 일주일 전인 17일(21만5037원)보다 2.1% 하락했다. 지난해 11월 하순과 비교하면 12.1% 낮은 수준이다. aT는 김장철을 맞아 지난 10일부터 배추 전국 17개 전통시장과 27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주요 김장재료 14개 품목 가격을 조사했다. 최근 김장비용은 2주 전 22만1389원보다 4.9% 하락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김장 성수기를 맞아 출하량이 늘고 있는 배추, 무, 쪽파 등의 하락 폭이 컸다. 고춧가루, 마늘도 가격이 떨어져 대파, 생강 등 일부 양념채소류 품목의 상승에도 전체 김장비용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배추 20포기 가격은 5만8605원으로 전주(6만1764원)보다 5.1% 내렸다. 전년(8만9160원)과 비교하면 34.3% 저렴한 수준이다. 무는 5개 기준 1만1443원으로 전주(1만2357원)보다는

배추·무·쪽파 하락폭 커...고춧가루·마늘 등도 안정세



7.4% 하락했다. 쪽파는 0.7kg기준 4244원으로 전주대비 7.4% 떨어졌다. 고춧가루는 2kg에 5만9986원으로 전주보다 소폭(0.2%) 내렸다. 마늘(1.3kg, -3.2%), 갓(1.4kg, -0.9%), 미나리(0.4kg, -0.9%), 멸치액젓(1.2kg, -0.4%) 등도 하락했다. 반면 대파(0.7kg, 3.6%), 생강(0.3kg, 2.9%), 새우젓(0.8kg, 1.3%), 양파(0.8kg, 0.2%) 등 일

부 품목은 가격이 올랐지만 전체 김장비용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aT는 김장재료 수급 안정을 위해 김장철 동안 견고추, 마늘, 양파, 소금 등 비축물량을 시장에 지속 공급하고 있다. 김장재료 구입비용의 상세정보는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www.kam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슬비기자

## 쉐보레, 10월 국내생산 승용차 수출 1위

트레일블레이저, 10월 1만7958대 수출

한국GM의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가 지난 달 국내 승용차 수출 1위 자리에 올랐다. 한국GM은 27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의 10월 자동차통계월보를 인용해 트레일블레이저가 현재 모델인 뷰익 앙코르GX와 함께 지난달 1만7958대를 해외시장에 판매해 승용차 모델별 수출 순위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트레일블레이저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한국GM의 판매 실적도 지속적인 상승세

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만6811대를 판매하며 전년 동월 대비 290% 증가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쉐보레는 지난달 1586대의 수입차를 국내에 판매해 베스트셀링 브랜드 4위와 연중 최고 판매량을 달성했다. 한국GM관계자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제외하면 메인스트림 브랜드 1위에 해당하는 실적”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